

지식 분류의 기호학적 체계 응용 방안*

The Application way on Semiotic Structure of Knowledge Classification

윤 정 기(Jenggiy Yoon)**

< 목 차 >

- | | |
|----------------------|----------------------------|
| I. 서론 | 3. 금서와 인터넷의 기호 구조주의적
관점 |
| II. 기호에 의한 지식 분류 | IV. 지식 분류의 기호체계 적용 |
| 1. 기호학적 측면에서 기호 | 1. 텍스트 패러다임의 변화 |
| 2. 기호학적 특성으로서의 도서 분류 | 2. 텍스트에 대한 기호학적 응용 |
| III. 기호학의 구조주의적 특성 | V. 결 론 |
| 1. 기호학적 구조주의와 독서 | |
| 2. 기호학적 구조주의와 금서 | |

초 록

본 연구는 지식 분류의 기호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지식 분류의 기호학적 구조가 고전이나 정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다. 이러한 영향의 흐름이 기호학적 체계의 구조적 측면에서 연유한다는 것을 통하여 인터넷 등 전자매체와 금서의 동일성을 사회 문화적 구조주의 시각에서 논의한다. 또한 기호적 해석이 가능한 구조주의 이론 틀을 빌어 대중매체를 포함한 영상 매체 등의 텍스트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호 체계의 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키워드: 기호학, 구조주의, 기호구조, 정전, 금서, 텍스트

ABSTRACT

This study unpacks semiotic character of knowledge classification and wants to know how sign structure of classification effects on canon and banned book etc, and by this impact stems from the semiotic structure structurally, discusses coidentity between banned book and internet in social and cultural structure aspect. and proposes way for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text like mass media using structuralism theory.

Keywords: Semiotics, Structuralism, Sign structure, Canon, Banned book, Text

* 이 연구는 2012년 광주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enggiy@gwangju.ac.kr)

• 접수일: 2012년 5월 25일 • 최초심사일: 2012년 6월 1일 • 최종심사일: 2012년 6월 28일

I. 서론

오늘날 매체 논의의 중심에 인쇄 매체와 대중 매체가 자리하고 있고, 매체의 진화 방향은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스마트 폰을 거쳐 4세대 이동통신인 롱텀 에볼루션(Long Term Evolution)서비스까지 와 있으며, 매체의 진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인쇄 매체나 전자 매체에서는 인간의 생각이나 의견 등이 언어와 비언어라는 기호로서 표현된다. 인쇄 매체에서는 문자나 그림, 그래프, 도표, 만화 등 각각의 기호로서 표현되지만 전자 매체에서는 디지털화되어 융합된 기호로써 표현된다. 전자 매체에 대한 논의는 인쇄 매체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서와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따른 극복의 대상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장애요인으로서 전자 매체는 독서에 영향을 끼쳐 독서량의 증대를 더디게 하고 독서 내용을 이해하는데 내용에서 벗어나거나 잘못 이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긍정적 측면에서 전자 매체는 디지털 정보의 증가에 따라 매체의 진화는 필연적이면서 사용에 대한 끊임없는 유혹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시대적으로 공감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쇄 매체와 전자 매체 간의 갈등과 상보적인 관계는 인터넷상에서, 트위터상에서 그리고 인터넷의 팟캐스트 등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양상의 기반은 인쇄 매체는 선형적이고 논리적인 시스템을 전제로 책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에 있고 전자 매체는 신속성과 다양한 정보에의 접근이 강하나 감성과 즉시성과 주관성 그리고 유목민적 특성에 있다.

인쇄 매체와 전자 매체 간의 갈등의 요인은 두 매체 간의 상보적인 관계의 설정과 두 매체를 하나의 체제로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두 매체를 대상으로 논리성과 신속성 그리고 감성과 주관성 등의 혼재가 가능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도록 해야 한다.

두 매체의 속성을 엮을 수 있는 체제로는 대중 문화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구조주의 기호학의 도입이다. 기호학은 문헌정보학적 측면에서 다소 생경하지만 문헌정보학은 목록법과 도서 분류를 근간으로 태생한 학문 분야로서 기호학과 완전히 다른 분야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기호학적 측면에서 도서 분류의 태생적 연관성을 논의하고 독서의 범주로서 대중문화 읽기를 위한 기호학적 해석방안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식의 분류 차원에서 기호의 역할을 논의하고, 도서 분류표상의 구조가 고전과 정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다. 또한 사회 지배의 헤게모니 측면에서 금서와 인터넷 검열 등을 작동시키는 시스템을 기호적 해석의 이론 틀을 빌어 대중 매체를 포함해서 영상 매체 등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텍스트의 해석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II. 기호에 의한 지식 분류

기호 문제는 태고적 문명을 시작으로 기원전 3세기 스토아주의자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제시되었고 그들에게 기호문제가 필요했던 것은 삼단논법의 상세한 논리 이론을 세우기 위해 구성항들을 기호로 하는 이론이 필요하게 되었다.¹⁾

기호의 탐구를 시작하기는 체계적인 지식을 세운 아리스토텔레스 시절부터라 할 수 있다.²⁾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분류에 유과 종의 두 개념을 사용하였고, 동물을 유혈과 무혈로 나눈 동물지라는 동물학 분류법을 만들어 냈다.³⁾ 분류체계상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습주의 언어관은 언어의 사회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현실주의적 언어이론을 표방한다고 할 수 있고⁴⁾ 기호는 일정한 언어적 공동체 속의 기능적 용법에 의존해 있다.⁵⁾ 아리스토텔레스와 스토아 학파는 기호 관계를 세마 혹은 오노마라고 불렀는데, 특히 오노마의 명칭은 대부분의 기호관계가 언어학적 기호 과정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⁶⁾

아리스토텔레스의 최초 작품으로 인정되고 있는 “범주론”은 언어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탐구의 기본적인 태도를 밝히는 저작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범주론을 통해서 언어에 대한 기본 관점은 말해진 것은 있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이다.⁷⁾

서구 기호학사에서 가장 독창적인 종합을 이룬 성어니스틴은 「변증론」에서 기호는 그 자체를 감각에 내보이면서 자신이외의 어떤 것을 의식에 나타내는 것이다. 말한다는 것은 분절된 음의 도움으로 기호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단어는 화자로부터 발언될 때 청자에 의해 이해될 수 있는 사물의 기호이다라고 하였다.⁸⁾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 동물분류의 구성항들은 낱말로 이루어진 기호들이기 때문에 낱말과 그것이 지칭하는 사물과는 인위적인 관계로서 아리스토텔레스 시절부터 기호를 탐구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1) 이동성, “기호와 사물 그리고 존재 : 기호의 존재론적 의미,” 동서언론, 제12집(2009), p.93.

2) 구가 가쓰토시, 지식의 분류사, 김성민 역(서울 :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7), p.16.

3) 상계서, pp.30-31.

4) McKusick, James C., *Coleridge's philosophy of language*(New Haven & London : Yale up, 1989), p.34.

5) *Ibid.*, p.6.

6) 오영훈, “기호작용과 기호관계,” 영상문화, (2009), p.256.

7) 양호영,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실체와 하나,” 철학논구, 제28집(2000), p.177.

8) 이동성, 전계서, p.94.

1. 기호학적 측면에서 기호

로크는 “인간 오성론”에서 기호학이란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인간의 지식을 사변적인 것과 실행적인 것 둘로 나누어 두 가지 지식 모두를 획득하고 발전시키고 공유하는 수단이 바로 기호학(semiotic)이라 하였다.⁹⁾ 그리고 퍼스의 기호학은 로크의 학문 분류체계와 칸트의 범주론의 전통에서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¹⁰⁾ 현대 기호학에서 기호를 연구하는 기호학은 스위스 언어학자 페르디낭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의 논의에 기반을 둔 이론이자 연구방법론이다.¹¹⁾

기호학적 측면에서 기호는 지각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반드시 물질적 기반을 필요로 한다. 우리 몸에 의해 지각될 수 없는 것은 기호가 될 수 없다. 순수한 아이디어 자체나 의미 자체는 그것이 특정한 기호물에 의해 표현되지 않는 한 기호가 될 수 없다. 기호가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것은 물질적 대상이 아니라 지각된 것이라는 사실이다.¹²⁾

기호학적 측면에서 기호는 그것의 지시 대상물과 관계를 맺으면서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이나 더 일반적으로는 기호가 주어진 문화 속에서 작용하는 방식을 가리킨다.¹³⁾

기존의 언어학에서는 언어가 대상을 직접적으로 재현하는, 즉 언어의 의미가 언어가 재현하는 대상에 의해 본질적 혹은 필연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데 반해, 소쉬르의 언어학에서는 언어를 기호로 보는, 즉 기호로서의 언어의 의미가 암묵적인 사회적 약속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¹⁴⁾

기호는 자신 외에 어떤 것을 대신하는 것으로 생각을 전달하는 모든 수단을 가리키면서 물질성을 띄고 있고 사물자체는 아닌 기표와 기의의 결합으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결국 기호학의 내부 세계는 기호가 무엇(what)을 대신하고 있는가(메시지 영역)와 어떻게(how) 대신하고 있는가(코드 영역)로 이루어져 있다.¹⁵⁾

2. 기호학적 특성으로서의 도서 분류

분류의 역사는 인류 지식의 역사로서 구체적 사물을 분류하면서 분류를 의식했듯이 인간이 사는데 필요한 수단이었다. 분류란 지식 구조의 표현이자 이론이며, 지식 구조는 지식의 여러 부분 간의 관계이다. 그리고 지식 자체는 구조를 갖지 않으나 학습이나 교육의 용이성을 목적으로 철학자들에 의해 여러 학문 영역으로 분할되면서 비로소 구조화되었다.

분류표는 지식 구조의 표현 도구로서 학문 세계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현상간의 균형을 유지시켜

9) 김주환, 디지털 미디어의 이해(서울 : 생각의 나무, 2008), p.48.
10) 김성도, “현대 기호학의 본질,” 문학과 사회, 제8권, 제4호(1995. 11), p.1502.
11) Bernard Toussaint,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윤학로 옮김(서울 : 청하, 1989), p.16.
12) 김주환, 전계서, p.48.
13) Mark Poster, 뉴미디어 철학, 김성기 옮김(서울 : 민음사, 1994), p.22.
14) 최연희, 정준영, 문화비평과 미학(서울 : 한국방송통신대출판부, 2007), p.266.
15) 이두원, 커뮤니케이션과 기호(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1998), p.18.

주는 것인데, 도서 분류는 이러한 지식의 학문 중심적 분류를 기반으로 하여 도서관 자료 조직을 위해 개발된 것이다.¹⁶⁾ 현대 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십진분류법의 기초는 미국의 멜빌 듀이가 창안한 것이다.

문헌분류법에 있어서는 모든 주제 영역을 취급하게 된다. 주제는 어떤 아이디어가 조직되거나 체계화된 부분이다. 그러므로 지식 또는 인간의 사상을 분류하는 문헌분류의 기본적인 작업은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진다. 분류에 있어서는 이러한 아이디어나 개념을 표현하는데 있어 언어의 불명확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단어를 기호로 대체하게 된다.¹⁷⁾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데는 크게 목록과 도서 분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장서관련 목록이고 다른 하나는 서가 분류로서 장서를 쉽게 정리하고 검색하기 위한 것들이다. 대부분의 문헌분류표에서 기호는 문헌의 주제 또는 형식을 상징하는 대체적 부호이다. 그래서 기호란 문헌분류의 실제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필연적인 것이며, 기호가 없이는 문헌에 대한 분류의 적용은 불가능하다.¹⁸⁾ 그리고 기호는 단어, 패턴, 그림, 모델 또는 그 밖의 어떤 것이든 간에 무엇인가를 나타내기 위한 임의적 기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부호의 사용 없이는 인간의 사상을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¹⁹⁾ 따라서 분류기호는 분류체계 중 특정주제를 확인하고 서가상 혹은 목록기입상 자료를 명확하게 배열 할 수 있도록 모든 명사의 논리적 순서를 간략하게 표현한 부호이며, 기호라고 할 수 있다.²⁰⁾

결국 분류표는 목적, 개념 또는 기록 등의 자료들을 조직하기 위한 체계를 부여하고, 기호법은 어떤 분류체계내에서 선택된 분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체계이다.²¹⁾ 그리고 분류표상의 기호는 아이디어나 개념의 불명확성을 극복하기 위해 아이디어나 개념 또는 이들을 나타내는 단어를 서수로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분류언어는 분류 학자에 의해 통제된 통제언어로서 어떤 주제나 그 주제를 취급하고 있는 문헌을 배열하기 위한 것이다.²²⁾

도서 분류가 기호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류 대상인 책을 내용에 따라 분류하고 숫자로서 대신하는 기호라는 물리적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분류리는 자신 외의 책을 지칭해야 한다. 그리고 도서 분류 체계 내에서 사서나 일부 이용자 등 다른 사람들에 의해 기호로서 인정되고 있어야 한다. 기호의 구성 요소인 기표가 도서 분류이고 그 기의는 대상이 되는 책을 지시하는 연결체가 된다. 이것은 의미상 외연적 의미를 나타낸다. <표 1> 처럼 도서 분류는 기표이고 그 기표와 관련해서 우리가 떠 올리는 대상의 관념은 기의이다. 도서 분류의 의미는 외연적 의미 이외에 내포적 의미와는

16) 정영미, 지식구조론(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7), p.39.

17) 남태우, "분류 기호법에서의 초기성 연구," 도서관학, 제22집(1992), p.180.

18) 상계서, p.183.

19) 상계서, p.184.

20) Wynar, B., *Introduction to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6th ed.(Littleton : Libraries Unlimited, 1980), p.399.

21) 박재혁, "DDC 20판의 특징과 소개" 국립대학도서관보, 제8집(1990), p.68.

22) 남태우, 전계서, p.182.

연관되지 않는다. 도서 분류를 기억하고 있는 경우에도 분류 대상의 내용 파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주제와 연관된 카테고리 정도일 뿐이다. 도서 분류에 따라 서가에 배치된 책의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표 1〉 도서 분류의 기호 체계

기 호 (도서 분류)	기호 (분류 대상을 도서 분류로 표현)	
	기의 (도서 분류가 담고 있는 의미)	외연적 의미 (도서 분류의 의미, 서가상의 배치)
		내포적 의미 (서가상의 배치가 연상되는 의미)

우리는 계층적인 카테고리를 가지고 사회화 한다.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 경험과 상상력의 문제이다. 인간 경험은 지각, 신체 활동, 문화 등이며, 상상력은 은유, 환유, 정신적 표상 등이다.²³⁾ 도서 분류를 선택적으로 지각하여 분류 대상을 대신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분류 체계에 따라 대상을 선택하고 배치하는 장서 관리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다. 의미의 소통 과정에서 도서 분류기호는 책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분류 대상인 물리적 실체를 단순하게 숫자 등의 기호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문자 등의 메시지로 표현된 물리적인 대상을 분류하여 숫자 등의 기호로 다시 표현하는 표상(representation)의 특성을 갖는다.

어떤 것을 분류하는 우리의 능력은 두 가지 기본적인 인지능력을 전제로 한다. 하나는 어떤 것을 다른 것과 구별하는 이원적 변별이고 다른 하나는 생각들을 서로 연결하는 두뇌 기능의 편재화이다.²⁴⁾ 두 객체를 서로 구별하고 객체간의 개념의 특징을 인식하면서 카테고리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III. 기호학의 구조주의적 특성

구조는 상호 작용하고 상호 의존하는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드러내지 않거나 표피적 현상의 밑바닥에 존재하면서 그 현상을 가능케 하는 체계이다. 구조에 관심을 갖는 구조주의는 숨겨져 있으면서 현상에 작동하는 심층구조를 찾아가는 접근방법이다.²⁵⁾ 즉, 한류라는 현상을 넘어 한류를

23) Alex Wright, 분류의 역사, 김익현, 김지연 공역(서울 : 디지털 미디어리서치, 2010), p.52.

24) 상계서, p.45.

25) 원용진, 대중문화의 패러다임(서울 : 한나래, 1996), p.172.

나타나게 만든 더 본질적인 차원은 경제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대장금과 가을동화 등 드라마나 소녀시대 등의 팝 그리고 올림픽과 월드컵 대회 등 세계적인 대회와 김연아 등의 스포츠 스타 등의 탄생을 야기한 각 분야가 관계 맺은 구조에 기인한 것이다. 자칫 개별 주체들의 다양성이나 불확실성보다는 모든 요소들을 구분하고 규격화하여 일정한 틀로 범주화시키는 것이다.

구조주의는 철학에서 늘 기본적인 대립 향으로 인식되어 왔던 대상(세계, 사물, 물체 등)과 주체(의식, 영혼, 마음 등)의 이분법을 버리고 이 둘 사이에 어떤 제3의 차원, 즉 인식대상(언어, 친족, 신화 등)의 구조와 그 항들 사이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는데, 이 차원이 바로 구조다. 그리고 주체와 대상은 무의식적으로 그 제3의 공간을 통해 관계를 맺는데, 그 공간은 논리적, 법칙적 공간이기도 하다.²⁶⁾

구조주의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규정짓는 규칙이나 틀을 찾아내면서 인간을 조직화하고 규격화하려고 한다. 이러한 구조주의는 모든 사회, 문화 현상을 기호체계로 분석하는 데, 소쉬르에 있어서 기호학은 이러한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출발하고, 기호는 본질적으로 기호들 간의 차이, 조합관계를 통해서 의미가 발생된다.²⁷⁾

1. 기호학적 구조주의와 독서

구조주의적 측면에서 분류 항목은 항목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의미보다는 다른 항목과의 차이와 관계로서 그 가치가 결정된다. 분류 번호 또한 분류 번호 자체보다는 다른 번호와의 차이와 관계를 통해서 의미를 갖는다.

최초의 도서관 장서들의 분리된 분류 목록은 칼라마쿠스가 만든 피나케스라는 광범위한 문헌 목록으로 “모든 학문 분야의 저명한 인물들과 그들의 작품 목록표”이다. 오늘날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전은 특정 작품군으로 캐논(canon)이라고도 하고 “규범 또는 모범으로 제시되는 작품 또는 작가 목록”으로서 잘 알려진 저자나 작품을 모아놓은 것으로 책의 유통과 보급 및 이용을 규제하는 강제 메커니즘으로 작용해 왔다.²⁸⁾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서구 철학자들은 사물들의 이름으로 된 기호로서 지식을 분류하였고, 지식 체계는 사구 지식 체계가 중심이 되어 피나케스와 정전의 근간이 된 것이다. 이러한 지식 구조의 틀은 도서관 분류 체계의 구조주의적 틀을 형성하고 있다.

도서 분류는 서유럽 중심의 정전을 위한 틀로서 적용되면서 지속적으로 정전의 기준을 제공하여 왔다. 특히 서구 중심의 도서 목록은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유용하고 합리적인 독서의 도구로서 여러 세대에 걸쳐 권위 있는 지식인들이 인정해 왔으며 고전과 정전을 중심으로 권장되어 왔다.

26) 이동성, 전계서, p.98.

27) 이동성, “후기 구조주의에서의 의미의 문제 : 들뢰즈의 사건을 중심으로,” 동서언론, 제10집(2006), p.270.

28) Roger Chartier, Guglielmo Cavallo, 읽는다는 것의 역사, 이종삼 옮김(서울 :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6), p.563.

그러나 서유럽 중심주의적 시각에서 구조화되었던 책에 대한 보편적인 정전의 권위가 도전을 받고 독자들이 주어진 도서 선택 기준보다는 흥미나 개인적인 관심 그리고 사회적 이슈 중심으로 나아가는 소비적인 독서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즉 옛 동독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통적인 정전의 거부와 미국 스탠퍼드 대학생들의 유럽 쪽에 치우쳤던 정전을 미국적인 것으로 바꾸도록 요구한 것이나 미국 디트로이트 공공도서관 등에서 소비적인 독자들의 기호와 요청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분류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것 등은 서 유럽 중심주의를 벗어나는 대중적인 독서법이 확산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²⁹⁾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2000년대에는 시나 소설보다는 자기 개발서나 경영관련 서적 그리고 여학서적 등의 실용서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고 다빈치코드나 해리포터등과 같은 픽션이나 SF등이 많이 읽히고 있다.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가정소설인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는 해외에서조차도 호평을 받고 있으며 일본 작가의 오웰류인 1Q84년도 국내에서 많은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윤리 의식과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사안에 관한 '정의란 무엇인가'와 '아프니까 청춘이다' 등의 자기 개발서 또한 베스트셀러 대열에 합류했다.

미셸 드 세르토는 독서행위에 들어 있는 '무한히 많은 의미'를 강조하면서 보통 사람들이 매체에 의해 밀랍처럼 틀에 박힐 수 있는 생각에 저항했다³⁰⁾. 밀랍 같은 틀은 분류체계와 같은 구조적 틀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따라서 개인은 매체의 산물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말하자면 전유해야 한다고 하였다.³¹⁾ 그러면서 인간은 사회구조에 매몰되지 않으면서 인간의 가능성을 이성이나 자유의지 등에서 찾지 않고 일상생활의 차원을 부각시키는 일상생활의 창조성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³²⁾

샤르티에는 프랑시스 책의 역사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산물로서 책이 가지는 의미를 나타내려고 하였는데, 이는 책의 역사에서 독서의 역사로 옮기는 결과를 낳았다.³³⁾ 그는 통계적 분석방법에서 서적을 물질적 대상으로 취급하는 분석적 도서관학의 응용 등의 도움도 받으면서³⁴⁾ 독서의 역사 즉, 책의 출판보다는 책을 읽고 소비하는데 무게를 두었다.

이러한 변화되는 독서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유럽 중심주의적 세계관을 보이는 지식의 분류에서는 서구 사상의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이 드러나 보인다. 도서 분류 체계에서 드러나는 서구 지식의 서열화와 범주화 그리고 보수화는 독서 경향으로 이어져 고전과 정전을 끊임없이 재배치하면서 그러한 지배적인 체계에 순응하는 사회적 환경을 구축하여 왔다.

29) 상계서, pp.574-579.

30) Robert Darnton, 책과 혁명, 주명철 옮김(서울 : 도서출판 길, 2004), p.305.

31) 상계서.

32) 박명진 등저, 문화, 일상, 대중 : 문화에 관한 8개의 탐구(서울 : 한나래, 1996), p.131.

33) 이은애, "문화로 만나는 역사와 문학-책과 독서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12집(2008), p.425.

34) 육영수, "책과 독서는 역사를 움직이는가 : '단턴 테제'와 '단턴 논쟁'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제79집(2003), p.164.

2. 기호학적 구조주의와 금서

초기 기독교 도서관의 서가 목록은 성경이 가장 먼저였다. 그리고 베이컨은 지식의 분류에서 자연과학을 신의 과학의 하위 범주로 분류하였다.³⁵⁾ 이처럼 종교 중심의 서구 지식 체계의 형성은 도서 분류의 구성뿐만 아니라 독서 목록의 형성에도 영향을 끼쳤다.

도서 분류가 지식의 서유럽 중심주의로 구조화됨으로써 저명한 저자나 저서 중심의 정전 또한 지식 분류 체계를 답습하는 경로를 따라왔다. 그리고 시대적인 지배질서와 물질적인 이유에서 특별한 문학 텍스트에 집중하도록 한 총체적인 통제시스템 차원에서의 금서정책³⁶⁾ 또한 구조적인 측면에서 정전과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다.

15세기 서양에서 활판 인쇄술이 등장하면서 출판에 앞서 검열을 하게 되었다. 교황 바울 4세는 1559년 ‘금서목록’을 발행하였다.³⁷⁾ 단턴은 프랑스의 구체제 하에서 보통 사람들이 금서문학에 심취함으로써 지배계층이 지탱하는 신성한 권력구조를 균열, 붕괴시켰다고 확신하며 금서문학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행사되어 프랑스혁명의 이데올로기적 기원이 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즉 책과 독서가 혁명의 주체 세력에게 유용한 혁명의 수단이 된 것이다.³⁸⁾ 금서정책에서 대상으로 삼은 것은 물질적인 책과 책 속에 담긴 추상적인 내용 그리고 내용을 읽고 해석하는 독자들이었다.

조선시대에서는 통치이념인 성리학을 주류이념의 대상으로 하였지만 도학과 불교 등은 경학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배세력으로부터 반동적으로 몰리면서 터부시 되었다. 도학과 불교 그리고 정명학 관련 서적 등은 금서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끊임없이 지배체제를 흔들고 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금서의 ‘禁’에는 ‘함’이라는 뜻도 있다. 궁은 왕의 거처이면서 전 근대적 지배 권력의 상징적인 역할을 하였다. 금서란 어떤 이유에서건 지배 권력이 금지한 서적을 뜻하였다.³⁹⁾

이기훈⁴⁰⁾에 따르면 문맹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일제 식민지시기에 학교교육의 전파와 도서관의 설치와 독서의 교육과 규율 그리고 학습을 관장하는 기제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도서관의 분류 기호 체계는 학문의 줄 세우기와 서구 사상 중심의 사고를 틀 지우는 구조적인 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단턴⁴¹⁾은 금서의 세계는 삶과 문학이 유리되지 않고 상호 소통하는 세계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35) Alberto Manguel, *독서의 역사*, 정명진 옮김(서울 : 세종서적, 2006), p.284.

36) 박정희, “책의 탄생’을 둘러싼 암투와 지략-동독의 검열 제도와 그 영향-,”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제18권(2008), p.134.

37) 주명철, *지옥에 간 작가들*(서울 : 소나무, 1998), p.225.

38) 이은애, *전계서*, p.426.

39) 이중연, *책의 운명 : 조선~일제 강점기 금서의 사회·사상사*(서울 : 해안, 2001), p.19.

40) 이기훈, “독서의 근대, 근대의 독서-1920년대의 책읽기,” *역사문제연구*, 제7호(2001. 12), p.22.

41) Robert Darnton, *전계서*, p.428.

도서 분류와 같은 구조적인 틀은 실천적인 다양한 삶의 형태를 담아낼 수 없다. 이미 선행 지식체계가 구조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배계층의 시각에서 금서는 지배질서에 어긋나는 내용의 유통을 제한하여 주류 사상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려는 시도지만, 다른 한편에서 금서의 유통은 일상 생활을 관통하여 주류사상에 저항하는 시도로서 독서 대상의 일부가 되었다.

도서 분류 체계는 제도적인 체계를 통한 지식의 서열화로서 구축되었다. 따라서 도서 분류 체계의 의미화는 독자들과 독서에 따른 의미화와는 거리가 멀다. 한편 금서는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것보다는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대상을 달리하는 인위적인 제약의 산물이다. 그러나 도서 분류 체계와 금서는 내용을 통해서보다는 구조적으로 대상과의 차이를 통해서 의미를 발생하는 기호학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금서는 같은 책을 읽은 독자라도 의미의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에 문화적 상대주의가 적용되는 것이다.

3. 금서와 인터넷의 기호 구조주의적 관점

구조란 겉으로 드러나는 표피적 현상의 밑바닥에 존재하면서 그 표피적 현상을 가능케 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것이든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나 행위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심층적인 원리나 체계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구조이다.⁴²⁾

금서와 인터넷의 구조적 관련성은 대중문화를 통해서 비슷한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나타내는데 있다. 즉, 통치 지배 이념에 배치되는 대상을 규제하는 금서와 나치 관련 물품 거래와 관련한 프랑스 법원의 명령에 굴복하여 인터넷 검색 업체 야후가 해당 사이트의 목록을 삭제한 것이나 구글의 중국 판 삭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요구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 등은 금서와 인터넷 등이 이데올로기적으로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례 등이다. <표 2>에서처럼 분류 기호 체계와 금서 그리고 정전 등은 구조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 금서에서 제시된 글들이 지배계층에 대항하는 것만으로 많은 독자들과의 관심을 가졌듯이 인터넷 가상공간의 글 또한 신뢰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지만 수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금서나 인터넷 등의 정보는 지배 계층들에게 통치 행위나 권위의 실행에 있어서 동시대인들에게 통제 수단으로 활용할 만한 도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복잡한 정치 사회경제적 이슈들이 금서로 인해 사적인 신상문제로 전환됨으로써 도덕적으로 사회를 피폐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죄 없는 희생자를 양산해 낸다는 흑백논리가 독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주입되었다. 이것이 금서가 파종시킨 집단적인 흑백논리의 정치의식이다. 금서는 곧 책의 학살⁴³⁾이요 파괴다.

42) 김창남, 대중문화의 이해(서울 : 한울 아카데미, 2002), p.65.

43) Rebecca Knuth, 책을 학살하다, 김창래 옮김(서울 : 알마, 2010), p.44.

단턴⁴⁴⁾은 유명작가나 철학자의 정전(cannon)들을 끊임없이 분류, 재분류하여 저술된 기존의 문학과 철학사는 시대착오적인 '일종의 고안물'이며 지루한 지적 유희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실제적인 삶으로서의 계몽주의와 접속하기를 원하는 역사가는 제도권 문학계를 떠나 금서의 세계로 향하는 열차를 타야 한다고 하였다.

아래로부터의 계몽주의를 설파하고 피 지배계층들의 삶의 흔적을 살피는 데는 금서나 비방문학 등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것이다. 비방문학은 90%는 거짓말투성이고 10%는 확인할 수 없는 풍문과 가십을 옮겨놓은 것으로 어느 순간에 시대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기록한 야사로 둔갑하였다. 비방문학은 당시의 대안적인 저널리즘이었던 것이다.⁴⁵⁾

금서가 유통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사회적 관심이 어느 쪽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며 프랑스 구체제 말기에 있어서 의견교환의 자유를 위한 지식인의 투쟁을 말해준다. 만일 어떤 책을 구하지 못하여 읽지 못하였거나 문맹이기 때문에 읽지 못하였거나 간에 사람들은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건 들어서 알 수 있었다. 정치, 종교, 도덕의 어떤 분야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하였다.⁴⁶⁾

오늘날 인터넷 등의 가상세계는 디지털 문화의 산실로서 익명으로 인한 적극적인 표현, 의사소통의 다양화, 세대 간 계층 간의 수평적 관계, 시공간을 초월한 신속성 등을 기반으로 세계화를 선도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인터넷은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정보가 체계적이거나 조직적이지 못하고, 선정성이 강하며, 익명의 그늘에 숨어서 각종 루머를 양산해 내는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인터넷 등 전자 매체라는 테크놀로지는 익명성과 불확실성 그리고 수평적 계층화와 통합과 분산 등 사회적 변화를 야기하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등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식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전자 매체 등은 디지털 정보의 보편적 접근을 활성화하고 집단 지성을 이끄는 기술적 이데올로기의 동력이 되고 있다.

맥루한⁴⁷⁾은 "매체는 메시지다"라고 하였다. 정보화의 진화와 정보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매체의 변화와 출현을 가져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매체가 내용을 담는 그릇이 아닌 매체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로써 기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체마다 읽는 방법을 달리하고 그러한 방법을 습득해야만 메시지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고대나 중세에서 교회의 건물이나 그림처럼 상징을 통한 언어적 도구에서 근대의 문자와 현대의 전자 매체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상징적 기호를 통하여 의사를 소통하였다. 매체마다 기호체계를 달리한다. 개별 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매체별 기호체계를 습득하고 읽혀야 한다.

44) Robert Darnton, 전계서, p.167.

45) 상계서, p.169.

46) 주명철, "프랑스 혁명 이전의 사회 병리 이상-금서의 유통을 중심으로(1774-1789)-," 역사학보, 제102호(1984), p.131.

47) Marshall McLuhan, 미디어의 이해(서울 : 삼성출판사, 1992), p.298.

인쇄 매체와 전자 매체가 대립되는 것으로 비쳐지는 인터넷 시대의 독서환경에서 전자 매체는 인쇄 매체의 독서교육에 방해가 된다는 그릇된 이데올로기적 이해의 해답을 전자 매체의 이해를 위한 매체교육의 활용 방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전자 매체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정보 매체 리터러시를 통하여 전자 매체에 가해진 이데올로기를 해체하는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금서가 하나의 여론을 형성하는 기제로서의 역할을 했듯이 인터넷상의 소통 상황도 하나의 기제로 인식해야 한다.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유통되는 정보는 곧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어떤 형태로든지 대변하는 지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2〉 분류체계, 금서, 정전, 인터넷, 웹과 앱의 구조적 체계

매체 유형	특성	구조화	영향
도서 분류체계	2 중 잠금장치에 의한 접근성	규칙과 조건으로 구조화	서구식 지식체계에 의한 계층구조적인 구조주의
금서	지배계층에 의한 제한과 규정	사전 검열로 구조화	분류체계 등 지식체계구조의 영향으로 인한 사회 지배구조 체계
정전	저명한 저작이나 작가	사회적 영향으로 인한 구조화	분류체계 등의 지식체계 구조로 인한 내용 중심 보다 저작이나 작가 중심 구조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체계로서 상징적 기호로 소통, 주제 형성, 디지털 정보, 주관적이고 익명성.	인터넷 감시와 처벌, 금서의 내용처럼 내용의 신뢰성과 객관성 담보할 수 없음	수평적 구조이면서 이용자 중심의 표현과 비판 기능 가능
웹과 앱	포털사이트의 웹과 스마트폰 등의 앱, 영상 위에 글자 등을 통해 시각적인 정보 추가하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과 사람의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에 해당하는 센서를 이용하는 증강인류.	포털 사이트 중심의 집단 지성의 웹과 소셜 네트워크 중심의 앱.	1인 미디어 기능, 대중 매체에 비해 객관성과 과학성 부족, 대중 매체보다 신속성과 소셜네트워크 강화, 대중 매체와 같이 신뢰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매체와의 상호 보완성

지식 분류의 기호학적 특성은 매체의 내용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도구로서 전유되어야 한다. 즉 기호학적 측면에서 지식 분류의 기호학적 특성을 대중매체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언어로 확장해야 한다.

IV. 지식 분류의 기호체계 적용

1. 텍스트 패러다임의 변화

지식 분류 체계는 도서관 운영의 구조적인 틀을 지탱하는 토대가 되어 왔다. 하지만 지식 분류 체계는 서구 기독교 중심적인 지식 체계로써 정전 위주의 독서 문화를 형성하면서 금서 등을 구조적으로 배제하는 기호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자 매체 중심의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지식 분류 체계 구조를 능가하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정보 접근의 채널이 형성되고 채널의 수와 더불어 정보량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도서관에서는 전자 매체도 인쇄 매체와 마찬가지로 각 종 마크를 붙여 소장 유무와 위치를 표시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독서 지도가 인쇄하듯이 전자 매체의 내용적 접근보다는 일반적인 매체의 영향력과 관리 등에만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독서의 대상이 책과 더불어 디지털 텍스트까지 확장되었지만, 디지털 텍스트는 책을 읽는데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다. 독서률을 높이기 위해서 대중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형용모순을 엿볼 수 있다. 디지털 텍스트는 논리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는 학습도구인 전자책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각종 대중매체 중심의 텍스트를 포함한 것이다.

정보 전달 매체의 영향은 일반화되어 있고 매체 환경의 변화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매체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체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수용자의 전유행위를 지원해야 한다.

인쇄 매체 등의 선형적이고 위계적인 구조는 컴퓨터의 등장과 함께 의문시되기 시작하였고, 컴퓨터는 하이퍼텍스트의 연상 방식으로 인쇄 매체의 선형적, 위계적 질서를 위협하는 도구가 되었다. 각 상황에는 그 상황에 맞는 치료책이 있듯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치료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 책의 형태에 자기를 맞추기 위한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

하이퍼텍스트에서 읽는다는 것은 펼쳐진 글에 나타난 길들 중에서 하나의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다. 글의 구조에 따라 경로 선택의 폭은 달라진다. 파피루스 두루마리는 매우 선형적인 길을 강요한다. 신문은 독자 마음대로 순서를 정해서 읽고 건너뛸 수도 있다.

뉴미디어의 언어는 상징적 기호로서 비선형적이면서 확실적인 경로로 되어 있지 않다. 경로의 선택은 독자나 수용자의 몫이다. 독자나 수용자는 상징적 기호를 해석하고 결과에 책임을 진다. 하이퍼텍스트 방식의 언어는 감성적이고 비논리적이다. 그러한 언어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매체 언어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 것이다.

손예희⁴⁸⁾는 매체 언어 교육에 대한 목표 지향적 접근을 통해 교수 학습의 관계를 설정할 필요성

48) 손예희, "학습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신장을 위한 매체 언어 교사의 존재상," 새국어교육, 제82호(2009), pp.193-218.

을 3가지로 제기하였다. 우선 읽기/수용 중심 접근법에서 매체 자체에 대한 비판을 통해 그 숨은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밝혀내는 것을 내용적 지향으로 삼기 때문에 교수 학습 상황에서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은 정답 찾기식의 학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쓰기/생산 중심 접근법에서는 매체에 의해 매개된 소통의 특성 및 이를 통한 문화적 생산물들이 삶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 학습자의 실제 경험을 통해 이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작 기능 중심 접근법에서는 제작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지향하고 학습자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교사의 끊임없는 질문이 필요해 진다는 것이다.

정보제공자의 역할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택하고 제공하는데 있다. 특히 학교도서관의 경우 이용 대상인 학생과 교사들에게 도서관 이용교육과 도서관 활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사들과는 교수 협동프로그램으로 도서관 활용교육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적 관계에서는 쌍방향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논의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된다. 매체와 매체 언어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매체 언어의 학습이 선행되어야 한다.

토대가 상부를 구축한다는 경제적 영향력의 기계론적 도식은 사회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데올로기 등이 서로 다층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차원으로 확장되었다. 따라서 문헌정보학적 측면에서는 읽기/수용 중심의 접근법으로 매체를 통한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해석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는 다음 <표 3>과 같은 매체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대중 예술적 관점은 매체교육 패러다임의 가장 기초적인 입장으로 교육 목적은 수용자들을 보호하거나 예방하는 차원에 두고 있다. 대중매체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선별적인 매체의 수용과 메시지의 차단을 통해 완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특히 고급문화와 저급문화를 구분하는 엘리트 중심 문화이론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대중예술은 저급문화의 부류로 매체에 대한 식별 교육을 통해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수용하는 수동적인 수용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 및 도구적 관점은 매체교육을 매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의 산업화와 더불어 문화의 산업화 그리고 미디어의 산업화가 사회 경제적 산업화의 도구로 활용되었다. 정보나 매체의 상업성으로 개인의 자율능력이 상실되는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매체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매체교육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었다. 또한 매체를 비판적으로 읽고 해석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능동적 인간형을 목표로 하였다.

미디어 환경론적 관점은 가상공간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인터넷 환경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관계는 전통적인 인간관계를 벗어나 익명성을 전제로 해서 일시적이고 즉시적으로 관계 맺기를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진행 중에 있다. 인간관계의 신뢰성보다는 같은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다. 새로운 커뮤니티의 형성으로 나아가고 있다. 자신의 현실적 대안으로서 가상세계의 자아를 형성하여 삶을 추구하는 복수의 자아 정체성을 그리

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매체를 통하여 메시지를 소비하기보다는 소비하여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메시지를 생산하는 프로슈머(prosumer)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게 되었다.

<표 3> 매체교육 패러다임 변화 과정⁴⁹⁾

패러다임	대중예술적 관점	기술/도구적 관점	미디어 환경론적 관점
교육 목적	보호주의/예방적 차원	개인의 자율 규제 능력	환경 적응 능력=미디어 능력 (환경과의 상호능력)
미디어 정의	대중예술	미디어 산업	일상환경
요구능력	선별적 미디어 수용 메시지 분별	적극적 미디어 수용 메시지 해독	적극적 미디어 생산과 창조, 메시지 창조
인간형	수동적 인간	능동적 인간	창조적 인간

매체는 이미 도구라기보다는 실생활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이제는 매체의 해악을 논하기보다는 매체를 적극적으로 생활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2. 텍스트에 대한 기호학적 응용

기호는 다른 문화현상들을 연구하는데 유용하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통찰에 입각해 있다. 첫째, 사회, 문화 현상들은 그저 물질적인 객체이거나 사건이기만 한 것은 아니며 의미를 지닌 객체이거나 사건이다. 즉, 기호이다. 둘째, 그것들은 본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의 조직망(network of relations)에 의해 규정된다. 기호와 관계가 분석에서 핵심이 되는 두 개의 개념들이다. 개념들이 의미를 갖는 것은 관계 때문이며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대립관계이다.⁵⁰⁾

사람들이 고양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저마다 고양이라는 동물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그러나 각 사람들이 떠올린 고양이의 모습은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그것은 고양이라는 말 자체 속에 어떤 본질적인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떠올린 그 동물을 고양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아무런 필연적 이유도 없다.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생긴 동물을 고양이라고 부르기로 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똑 같은 동물인 고양이를 어느 지역에서는 cat이라고 부르고 다른 지역에서는 猫라고 부른다. 고양이라는 의미는 그 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것과 대치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개, 소, 돼지 등 다른 많은 단어들과의 차이라는 관계에서 생성된다. 고양이의 의미는 개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닭도 아닌 어떤 것이다. ‘부유함’

49) 김양은, 미디어 교육의 개념 및 학교 미디어 교육의 방향(서울 : 다홀미디어, 2005), p.27.

50) Steven Cohan, Linda M. Shires, 이야기하기의 이론 : 소설과 영화의 문화 기호학, 임병권, 이호 옮김(서울 : 향나무, 1998), p.27.

의 의미는 '가난함'과의 관계에서, '행복'은 '슬픔'없이는 의미를 지닐 수 없다는 것이다. 개념들은 순수하게 차별성을 지니는 것이며 정적인 내용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고, 그 체계 내의 다른 용어들과 맺는 관계에 의해서 규정된다.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내용'이 아니고 체계 내에서의 '관계'이다.

구조주의에서 문화의 의미가 대상 그 자체에 내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들과의 관계에 의해 생겨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서 분류에서도 분류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서 분류와의 차이에 의해서 의미가 발생한다.

나와 다른 것이라는 이분법에서 시작한 기호학은 기호들이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과 그 기호들의 사용에 있어서 지배하는 규칙들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학문이다. 즉 기호학은 기호의 유형과 체계 구조를 분석하여 그 배후에 숨겨진 의미를 밝혀내고 그 의미가 어떻게 창조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다.⁵¹⁾

소쉬르의 기표와 기의라는 기호학적 도식은 1차적 의미이고 이러한 소쉬르의 모델에 문화를 접목시킨 바르트의 새로운 모델로서 사람의 감정과 주관, 문화적 가치 등 문화적 배경이 첨가되어 2차적 의미가 더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바로 이 단계에서 신화가 만들어지고 소비된다. 신화는 이데올로기다. 사회 지배계급의 가치와 이익을 생산하고 유지시키는 체계로서의 이데올로기다.⁵²⁾

이데올로기가 현실에 대한 왜곡된 지식이라고 할 때 바르트의 신화론은 기호 이론의 틀을 이용하여 이 왜곡이 만들어지는 구체적인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⁵³⁾ 즉, 발렌타인 데이, 빼빼로 데이, 초콜릿 데이 등은 기표와 기의가 합쳐져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이라고 하지만 2차적으로는 발렌타인, 빼빼로, 초콜릿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콜릿으로 이벤트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초콜릿을 소비하도록 하는 이데올로기가 되는 것이다.

가정드라마 텍스트에서 가정적인 여성과 전문직의 여성의 이항 대립적 상황은 가정적인 여성상은 가족 구성원들을 위하여 참고 인내하며 가정을 위하여 봉사하면서 가부장제에 순응하는 인물로 의미화하고, 전문직 여성상은 이기적이고 날카로우며 개인주의적 인물로 의미화 한다. 이들 두 여성상은 대립적 관계를 통하여 가정적인 여성상은 좋은 것이고, 전문직의 여성상은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그리고 두 대립적 상황은 각각의 여성상을 환유법으로 의미화하고 있다.

환유와 은유는 의미를 소통시키는 두 가지 기초적인 양식이다. 환유는 어떤 것의 전체를 표현하기 위하여 한 부분 또는 한 요소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은유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을 알려진 것을 통해서 표현하는 표현법이다.⁵⁴⁾

소주 광고에서 여성 모델은 은유적 표현으로서 잘 알려진 여성 모델을 통하여 잘 알지 못하는 소주를 의미화한 것이다. 이러한 기호화에 쾌락을 추구하는 어떠한 왜곡된 이데올로기가 있는지를

51) 김정탁, 염성원, 기호의 광고학(서울 :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0), p.14.

52) 김정은, 대중문화 읽기와 비평적 글쓰기(서울 : 민미디어, 2003), p.140.

53) 최연희, 정준영, 문화비평과 미학(서울 : 한국방송통신대출판부, 2007), p.275.

54) 이영음, 영상학(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7), pp.132-133.

읽고 해석하는 학습이 필요한 것이다.

그레마스는 이항대립의 개념을 원용하여 내재적 층위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의미의 구조를 분석한 후, 이것이 구체적인 이야기로 발전되어 가는 방식을 설명했다. 그리고 이야기의 배후에 존재하는 구조적 요소로서 6개의 행위자를 설정했다. 여기서 행위자란 특정 등장인물이나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를 구성하는 구조적 단위이다.⁵⁵⁾

구조적 단위는 주체가 대상 간에 대상을 욕망하는 주체를 돕거나 방해하는 협조자와 반대자, 또 한 이들 협조자와 반대자가 전달을 도와주거나 방해하는 송신자와 수신자 등의 6개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문화 현상들 즉, 영화나 TV등 대중매체와 광고, 패션, 문학, 건축 등을 구조주의 이론 틀을 통해서 텍스트 내의 의미 대립의 요소들을 찾아 대립 쌍을 만들어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과 그레마스가 제시한 방법으로 이야기의 전개를 세분하고 배열 방식을 통해 구조적 단위 간의 관계 하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텍스트의 외연에 드러나는 의미와 함축적 의미를 구분하여 의미화의 과정을 추적하는 신화 분석의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다.

V. 결 론

통신망이나 전자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는 문화산업이라는 자본의 이름으로 확산되고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대량생산 방식의 산업사회에서 대표적인 체제유지와 통제수단이었던 오웰식 방식은 헉슬리식의 능동적인 취향구조로 변화하면서 멋진 신세계만을 기대하게 되었다.

따라서 인쇄 매체에서 대중 매체나 인터넷을 통한 팟(pod)캐스트(cast)방송이나 영상 매체 등으로의 다양한 텍스트를 둘러싼 환경에서 미디어 제작과 미디어 내용을 비판적으로 읽어 내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다양한 텍스트 환경에서는 읽고 해석하는 방안과 쓰기 방안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텍스트 해석 능력이 형성된다. 즉 텍스트 사용자들이 제작이나 쓰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텍스트 읽기를 통해 비판적인 사회 인식을 갖도록 하는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문헌정보학적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다양한 텍스트의 비판적 읽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동안의 많은 방안들이 텍스트 내용 중심의 이해나 분석에 대한 접근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올바른 이용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전통적인 도서관 체계에 맞는 관리 방법에만 중점을 두어 왔다.

디지털 시대에 매체 이용자가 어떻게 정보를 수집, 활동, 변형, 생산해 내는가를 살펴보고 교육시키는 능동적인 미디어 수용자 교육이 중요해졌다. 특히 수용자는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수행하는

55) 최연희, 정준영, 전개서, pp.282-283.

프로슈머(prosumer)로서의 특성을 지니며, 미디어를 이용해 정보를 생산하고 교환하며 소비하는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텍스트의 해석을 위한 방안으로 기호학적 측면에서 기호의 체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호학의 기호 체계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서구 기독교 이념을 중심으로 지식의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도서관 분류 기호 체계는 분류 대상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2중의 잠금장치를 열어야 한다. 첫 번째 잠금장치는 대상의 위치를 파악해서 열고, 두 번째의 잠금장치는 위치가 파악된 텍스트의 내용에 접근함으로써 열수 있다.

지식 분류의 기호 체계는 독서의 대상에도 영향을 주어 문자의 생성과 더불어 인쇄 매체인 금서와 정전이 사회적이고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독서의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범주화되는 인위적인 변화가 가해졌다. 이러한 금서와 정전은 지배 계급이 구축한 구조적인 틀 속에서 이해와 해석의 대상이 되었다.

표현을 해석한다는 것은 저장된 표현으로부터 정보를 다시 얻는다는 것이다. 정보의 발생을 통해 지식의 확장에 도움이 되어야 하지만 정보 유통의 측면에서 도서관의 분류 기호 체계는 위치 안내 등 간접적인 기능 이외에는 정보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도서관의 분류기호 체계는 정보를 지식으로 만드는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적다. 다만 도서관의 분류 기호 체계는 정보를 기호화하고 기호화된 정보의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호화된 방식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기 위해 텍스트의 기호학적 해석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우선은 텍스트의 기호화가 정보의 표현이고 표현은 해석을 통해 정보를 생성한다는 차원에서 정보의 표현과 정보의 차이를 인식하고 정보의 표현이 정보를 발생시키는 논리를 파악해야 한다. 즉 도서관 등은 정보보다는 정보 표현을 수록하고 있고, 독자는 기호적으로 표현된 정보를 해석한다. 정보 표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비언어적인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칙, 관습, 습관, 지도, 법 등을 필요로 한다.

또한 대중 매체나 인터넷 그리고 영상 매체와 광고 등도 다양한 기호 체계로 표현되어 유통되고 있다. 따라서 지식 분류 체계의 기호를 적용하여 기호학적 측면에서 이러한 기호 체계로 표현된 정보들을 책을 읽듯이 읽고 해석하여 디지털 정보의 편향성이나 왜곡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독서 지도를 통하여 건전한 독서 문화의 형성에 기여 했듯이 대중 매체나 전자 매체 등의 정보를 기호학적 측면에서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디지털 문화의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참고문헌

- 구가 가쓰토시. 지식의 분류사. 김성민 역. 서울 :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7
- 김수행 편저. 청년을 위한 경제학 강의. 서울 : 한겨레 신문사, 1998.
- 김양은. 미디어 교육의 개념 및 학교 미디어 교육의 방향. 서울 : 다홀미디어, 2005.
- 김정은. 대중문화 읽기와 비평적 글쓰기. 서울 : 민미디어, 2003.
- 김정탁, 염성원. 기호의 광고학. 서울 :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0.
- 김주환. 디지털 미디어의 이해. 서울 : 생각의 나무, 2008.
- 김창남. 대중문화의 이해. 서울 : 한울 아카데미, 2002.
- 남태우. “분류 기호법에서의 조기성 연구.” 도서관학, 제22집(1992), pp.179-217.
- 박명진 등저. 문화, 일상, 대중 : 문화에 관한 8개의 탐구. 서울 : 한나래, 1996.
- 박재혁. “DDC 20판의 특징과 소개.” 국립대학도서관보, 제8집(1990), pp.66-94.
- 박정희. “‘책의 탄생’을 둘러싼 압투와 지략-동독의 검열 제도와 그 영향-.”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제18권(2008), p.134.
- 손예희. “학습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신장을 위한 매체 언어 교사의 존재상.” 새국어교육, 제82호(2009), pp.193-218.
- 양호영.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실체와 하나.” 철학논구, 제28집(2000), pp.175-191.
- 오영훈. “기호작용과 기호관계.” 영상문화, 2009, pp.148-174.
- 원용진. 대중문화의 패러다임. 서울 : 한나래, 1996.
- 육영수. “책과 독서는 역사를 움직이는가 : ‘단턴 테제’와 ‘단턴 논쟁’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제79집(2003), pp.155-181.
- 이기훈. “독서의 근대, 근대의 독서-1920년대의 책읽기.” 역사문제연구, 제7호(2001. 12), pp.11-71.
- 이동성. “기호와 사물 그리고 존재 : 기호의 존재론적 의미.” 동서언론, 12집(2009), pp.91-118.
- _____. “후기 구조주의에서의 의미의 문제 : 들뢰즈의 사건을 중심으로.” 동서언론, 10집(2006. 12), pp.263-289.
- 이병기. 학교도서관 중심의 정보매체와 교수매체론. 고양시 : 조은글터, 2006.
- 이승민. “서지레코드와의 연계를 통한 폭소노미 태그 프레임워크 구축.”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5집(2011. 2), pp.185-207.
- 이영음. 영상학.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7.
- 이은애. 문화로 만나는 역사와 문학-책과 독서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12집(2008), pp.417-438.
- 이중연. ‘책’의 운명 : 조선~일제 강점기 금서의 사회·사상사. 서울 : 혜안, 2001.

- 이채연. “매체 환경의 변화와 국어 교육의 방향: 매체 언어 교육의 교수학습 방법.” 국어교육학 연구, 제28집(2007. 4), pp.103-141.
- 정동열, 김성진. 이론정보학.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3.
- 정영미. 지식구조론.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7.
- 주명철. 지옥에 간 작가들. 서울 : 소나무, 1998.
- _____. 프랑스 혁명 이전의 사회 병리 이상-금서의 유통을 중심으로(1774-1789)-. 역사학보, 제102집(1984), pp.109-133.
- 최연희, 정준영. 문화비평과 미학.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출판부, 2007.
- 한국정보관리학회 편. 정보학의 실제.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5.
- Alberto Manguel. 독서의 역사. 정명진 옮김. 서울 : 세종서적, 2006.
- Alex Wright. 2010. 분류의 역사. 김익현, 김지연 공역. 서울 : 디지털 미디어리서치, 2010.
- Bernard Toussaint.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윤학로 옮김. 서울 : 청하, 1989.
- Mark Poster. 뉴미디어 철학. 김성기 옮김. 서울 : 민음사, 1994.
- Marshall McLuhan. 미디어의 이해. 서울 : 삼성출판사, 1992.
- McKusick, James C. Coleridges philosophy of langue. New Haven & London : Yale up, 1989.
- Rebecca Knuth. 책을 학살하다. 김창래 옮김. 서울 : 알마, 2010.
- Robert Darnton. 책과 혁명. 주명철 옮김. 서울 : 길, 2004.
- Roger Chartier, Guglielmo Cavallo. 읽는다는 것의 역사. 이종삼 옮김. 서울 :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6.
- Steven Cohan, Linda M. Shires. 이야기하기의 이론 : 소설과 영화의 문화 기호학. 임병권, 이호 옮김. 서울 : 향나래, 1998.
- Wynar, B. Introduction to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6th ed. Littleton : Libraries Unlimited, 1980.